

농수축산신문 **최윤진** 기자



# “오리아! 날자!”

‘오리산업 1조원 돌파’ 라는 소식에 여러 축산업 관련 관계자에게서 ‘오리산업이 그 정도로 커졌냐’ 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개한 ‘2008년 농림업 생산액 및 생산지수’ 를 보면 지난 2008년 오리 품목 생산액은 1조1,544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9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오리소비 ‘기지개’

지난해 만해도 고병원성 AI로 오리고기 소비는 침체를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생오리를 진열대에서 철수시키고 훈제오리만 팔았지만, 이마저도 매출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복 시즌을 즈음해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닭고기와 달리 오리고기 소비는 살아나지 않아 오리 사육 농가와 업체는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한국오리협회가 지난 11월 16일 밝힌 새끼오리(1일령)의 가격은 1,000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00원 올랐으며 생오리는 6,200원으로 전년동월 가격인 5,500원보다 700원이 올랐다.

오리고기가 불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해 육류를 꺼리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찾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오리업체도 냉동 비축 물량을 소진한 것은

물론, 수요 위축으로 문을 닫거나 폐업 위기에 놓였던 오리고기 전문점들도 최근에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리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한국오리협회의 소비촉진 활동도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오리협회는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젊은 층의 입맛을 공략하고자 대학교 축제 기간에 맞춰 오리고기 시식회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 2009년 오리산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여건이 나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리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양계의 경우 생산비 통계가 한우·낙농·양돈 등과 같이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매달 육계 관측을 발표하고 하지만 오리에 대한 통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1년에 한번 발표하는 기타 가축통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에 비해 2008년 갑자기

오리 품목 생산액이 증가한 것도 2007년까지 제대로 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얼마나 오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오리협회는 가축통계조사와 축산관측 품목에 오리를 추가하는 한편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오리고기에 대한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음식점소는 많지 않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된 오리육가공품은 1만5315kg.

이렇게 들어온 오리고기가 어디로 유통되는 지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이는 자칫 국내산 오리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안전성 담보한 고품질 오리 생산에 주력해야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담보로 고품질 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적지 않은 오리축사는 여전히 무허가건물이거

나 비닐하우스로 이뤄졌다.

이는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도, 화재 등 갑작스런 재해를 막는 데도 취약한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동안 오리에 대한 표준축사가 없었고 관련 기관에서 사양관리에 대한 교육 등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이제 오리산업이 그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사육기술과 환경이 절실하다. 또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소비시장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수출을 노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AI 발생으로 중단됐던 일본으로의 수출도 여전히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수입 축산물의 경쟁은 점차 심해질 것이다.

오리 사육농가와 업계가 국내산 오리고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해야 할 몫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수입산과 차별화된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